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D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e-Books Usage in Small University Library: Focusing on the D University Library

김진영 (Jin Young Kim)**

한상우 (Sang Woo Han)***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III.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실태 분석

IV. 결론 및 제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관련 정책과 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방의 한 소규모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명의 유효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이책과 전자책의 선호도에서 아직은 전자책의 선호도(12%)보다 종이책의 선호도(7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책의 이용 만족도(45.6%)가 종이책의 이용 만족도(27.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자책을 일반독서 용도로 사용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기기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서비스 운영 정책 및 홍보 계획의 수립, 이용자에게 친숙한 전자책서비스 이용 환경의 제공, 다양한 주제의 전자책 확보, 전자책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전용 단말기의 제공, 대학 간 전자책 공동 이용 연합체의 구성 등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소규모대학교, 대학도서관, 전자책, 전자책 관리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e-books usage in small university librar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book management policies. To do tha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in a local small university, and the valid responses of 259 peop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ference of paper books (71%) was higher than that of e-books (12%). However, satisfaction with e-books (45.6%) was higher than that of paper books (27.9%) if they had experience using e-books. In addition, satisfaction was highest when using e-books for general read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use device preferred to use a table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some suggestions: 1) establishment of e-books service policy and promotion plan, 2) use of e-books dedicated devices and development of user-friendly e-books using environment, 3) providing various topics of e-books, 4) formation of an association for joint use of e-books between small library universities.

KEYWORDS: Small University, University Library, e-Book, e-Book Management Policy

* 이 연구는 2021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jykim@duh.ac.kr) (제1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whan@gwangju.ac.kr / ISNI 0000 0004 6851 173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1년 6월 18일 • 최초심사: 2021년 6월 18일 • 게재확정: 2021년 6월 2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429-445,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429>

I. 서론

2010년에 세계적 미래학자이자 MIT 미디어랩 교수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한 컨퍼런스에서 종이책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으며, 5년 내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발언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물론 종이책과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후 아이패드, 킨들 등을 이용한 전자책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내에서도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이 경쟁하면서 전자책 시장은 성장했다. 최근 국내의 전자책 시장은 읽는 전자책 외에도 듣는 전자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독서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2년마다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17년에는 38.2%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61.8% 증가하였다.¹⁾ 특히,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상황은 전자책의 이용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자책의 이용 활성화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자책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판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18년 기준 20조 9,538억원인 반면, 전자출판시장은 3,830억원 규모로 1.8%에 그치고 있다(e-나라지표). 이러한 상황은 전자출판시장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전자책 출판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도 디지털도서관을 기반으로 학술정보, 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등 이용자 정보서비스 다변화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각종 전자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의 평균 종수도 2010년 8,626종에서 2020년 51,279종으로 약 6배 증가하였다(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21). 그러나 전자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책은 종이책의 보완재로 이해되거나 이용률도 높지 않고, 이용자의 호불호가 강한 장서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도 전자책을 장서로 인식하기보다는 외부 구독 서비스로 이해하고 자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수서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안)에서 대학도서관의 4요소 중 “균형있는 장서”와 “고객 만족도”를 포함하였으며, 첫 번째 추진과제로 수업 및 학습 활동 지원 강화를 설정하였다. 대학도서관은 강의와 연계된 전공서적의 신간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확충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매체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사고 및 능력함양을 위한 독서교육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전자책 장서 확충 및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자책 운영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소속 대학의 규모, 예산, 재학생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1)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1권 이상 읽음” 항목에 대한 증감률이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부속기관으로서 당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학의 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 국내 382개 대학교(대학, 전문대학 포함, 대학원대학 및 기타 대학 제외) 중 166개에 이르는 소규모대학교 중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전자책 이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서비스 제공 방향 및 운영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전자책 관련 연구가 대규모, 중규모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서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현실에는 일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소규모대학교

소규모대학교(small university)는 일반대학 또는 종합대학처럼 모든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설립 이념, 교육 목표 및 방향 등에 의해서 특정주제 학과만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볼 수 있으며, 모집규모 500명 이하, 정원 2,00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배성중, 배삼열, 김용, 20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한편, 대학도서관통계를 제공하는 학술정보통계 시스템(Rinfo)에서는 대학규모를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은 A그룹(10,000명 이상), B그룹(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C그룹(5,000명 미만)으로 구분하고, 전문대학은 A그룹(4,000명 이상), B그룹(2,000명 이상~4,000명 미만), C그룹(2,000명 미만)으로 구분하며, 대학원대학과 기타대학은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대학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는 영국의 타임즈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은 소규모대학순위를 발표하면서 기준을 5,000명 미만의 대학/대학원으로 4개 이상의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을 소규모대학교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 대학원대학과 기타대학을 제외한 대학과 전문대학 382개교 중 소규모대학교로 볼 수 있는 C그룹의 대학은 총 166개교(43.5%)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소규모대학교는 재학생수, 등록금, 예산, 경영 등 모든 측면에서 대규모, 중규모 대학교에 비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의 기본 통계를 확인하면 여실히 나타난다(〈표 1〉 참조). 일반 대학의 경우 A그룹의 도서자료는 C그룹에 비해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자료구입비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A그룹의 도서자료는 C그룹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자료구입비 역시 약 6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 소규모대학교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에서 수도권 대규모 대학교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아 이러한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대학의 규모에 따라 현격하게 벌어지는 격차는 소속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종합대학의 수준보다 낮더라도 소수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규모대학교는 존립 필요성을 가지며,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서운영과 정보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대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장서 구성, 서비스 차별화, 정책 마련 등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대학규모별 도서관 기본 통계

구분	대학수	도서자료 (책수, 평균)	자료구입비 (원, 평균)	기타 전자자료구입비 (원, 평균)	대출책수 (책수, 평균)	
대학	A그룹	66	1,462,732.5	2,676,306,258.9	71,306,309.8	134,283.8
	B그룹	62	605,514.3	589,446,113.0	39,848,773.5	45,048.4
	C그룹	89	220,470.1	249,839,435.7	9,420,081.9	15,289.1
	계	217	708,313.7	1,084,873,649.1	36,936,533.2	59,983.7
전문 대학	A그룹	49	195,767.6	140,677,559.8	12,072,950.7	13,432.1
	B그룹	39	125,745.9	78,229,451.4	6,669,665.4	11,703.3
	C그룹	77	40,593.4	22,241,514.0	1,359,019.0	2,127.5
	계	165	106,802.4	70,646,943.1	5,795,975.8	7,748.0

(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20년 기준, 시계열 통계를 재편집)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음의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남태우와 김진아(2003)는 전자책의 출현 배경,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도서관자원으로서 전자책이 가지는 기능, 문제점, 도서관 서비스 변화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자책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용자의 85.5%가 전자책을 알고 있으나 자관의 전자책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31.3%만이 알고 있었으며, 실제 이용자는 12.7%에 불과하여 낮은 인지율과 사용률을 보였으며, 전자책에의 용이한 접근과 달리 읽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 주제분야로는 전공분야의 서적류이며, 향후 전자책 서비스의 중점사항으로 자관 이용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책 제공업체마다 다른 포맷, 뷰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표준화의 필요성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고, 개별 도서관에서 전자책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정진환과 박일중(2006)은 전문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실태를 경험, 활용도, 전자책 이용 만족도, 이용정책에 대한 기대도 등의 척도로 분석하면서 전자책 도입 초기 향후 전자책 제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정진한(2009)은 전자책 이용자 연구와 전자책 대출기록 분석을 병행하여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낮은 이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자책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책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전자책 종수 확대, 전자책 수서 및 운영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남영준과 최성은(2011)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2.93으로 보통 수준이며,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저학년 집단에 비해 고학년 집단과 대학원집단이 전자책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콘텐츠이며, 도서관 지원서비스, 시스템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책에 기반한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홍보, 이용자 교육의 강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수정과 이지원(2016)은 대학도서관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 분석을 위해 국내 두 대학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현안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책은 도입 초기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도 종이책에 비교하여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를 불안정한 예산의 운용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에 있어 외부 업체로의 아웃소싱 보다는 자관에서 우수한 전자책을 수서하고 관리하고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책을 평가용으로 장서수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닌 현실적인 장서기준을 수립하고 유용한 장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다희와 이수상(2018)은 전자책 독서와 종이책 독서에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가격, 종이책 독서보다 높은 수준의 가독성, 공유의 편리함, 손쉬운 터치 방식, 읽어주는 기능, 폰트 크기 조절 기능, 북마크,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활용성, 보관 및 관리의 용이성, 시간적 효율성, 간편한 조작법, 휴대성 및 접근성 등이었으며, 전자책 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리더기가 있어야만 하는 번거로움, 고가의 전용 단말기, 콘텐츠의 부족, 베스트셀러에만 편중된 전자책 출판,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각종 알림, 전화 수신 등의 상황에 의해 독서 중단 등이었다. 반면, 종이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이책 특유의 감각, 아날로그적 감성, 깊은 독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메모나 밑줄긋기, 소유욕의 충족, 물리적 존재감, 독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재미, 독서 후의 여유, 온전한 집중과 여유, 종이책 독서에 대한 익숙함과 친근함, 지적인 이미지, 직접 구매행위를 통한 만족, 책과의 교감, 사전에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훑어볼 수 있다는 이점 등이며, 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게와 두께로 인한 휴대 불편, 활자로 인한 지루함, 자제나 공간의 불편함, 오타자 수정의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의 연구 사례들은 기존의 국내의 선행연구를 분석했을 때에도 전자책 이용 실태,

만족도, 전자책 서비스 개선방향 등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Zhu와 Shen(2014)은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학술정보 공동 이용 및 상호대차 방식을 도입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내 200여개 대학도서관을 임의 선택하여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라이선스의 문제는 큰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까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의 현실적인 규모나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단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나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의 규모, 장서규모, 재학생 수 등 모든 면에서 일반 대학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의 제공 방향 및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실태 분석

1. 연구대상 현황

본 연구는 2019년도 대학정보공시 기준 재학생수 1,700명대의 전문대학 C그룹에 속하는 소규모대학교인 D대학교의 성인학습자와 야간학과를 제외한 학령기 재학생 총 1,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D대학교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전자책서비스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의 장서 운영 기본 현황은 <표 2>와 같다.

D대학교의 전자책 장서량은 2019년 기준 6,621건으로 종이책 대비 15% 수준이며, C그룹 내의 평균 전자책 수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대학총예산 대비 0.2%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2> D대학교 장서 운영 현황(2015~2019년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서현황(건)	종이책	29,540	33,664	34,012	36,896	43,281
	전자책	375	324	2,909	4,645	6,621
C그룹 내 평균 비교(건)	종이책	20,557	23,751	23,702	24,508	26,097
	전자책	1,478	1,458	1,853	2,434	2,993
연간 도서구입 예산(천원)		52,098	54,933	28,449	38,064	35,350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남태우, 김진아, 2003; 남영준, 최성은, 2011).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설문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이용자 특성' 영역, '전자책서비스 평가' 영역, '만족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이용자 특성' 영역은 D대학교 학생들의 전자책서비스 이용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자책서비스 평가' 영역은 전자책서비스의 선호도 측정을 위해 종이책 이용과 비교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 영역은 전자책서비스의 이용행태와 전자책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측정도구 구성

측정영역		측정치표
이용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년
	전자책서비스 이용 현황	전자책서비스 인지여부
		전자책서비스 이용유무
		전자책서비스 비용 이유
전자책서비스 평가	전자책서비스 선호도 비교	전자책서비스 이용 빈도
		전자책서비스와 종이책 이용 선호도
		전자책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만족도	전자책서비스 이용 행태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
		전자책 이용 기기
	전자책서비스 만족도	전자책 이용 목적
		전자책서비스의 전체적 만족도

3. 데이터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의 진행을 위해 D대학교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전자책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6개의 응답 중 유효한 응답을 보인 259개를 분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책서비스 이용현황, 전자책서비스 선호도 비교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책 이용기기, 이용목적 등 전자책 이용행태별 전반적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전자책서비스의 이용빈도 및 선호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학년별 전자책서비스의 전체적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책 이용기기 및 이용목적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전자책 이용실태 분석

유효한 응답을 보인 응답자 259명에 대한 학년별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학년별 구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51	19.7
	2학년	115	44.4
	3학년	62	23.9
	4학년	31	12.0
전체		259	100

가. 전자책서비스 이용현황과 선호도

D대학교 전자책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이용자의 전체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으로 전자책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 전자책서비스의 이용 경험 여부, 전자책서비스의 비이용 이유, 전자책서비스의 이용 빈도 등 일반적 이용현황을 분석하였고, 종이책 이용과의 선호도 비교와 전자책서비스 또는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전자책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전자책서비스 운영 인지 여부	예	105	40.5
	아니오	154	59.5
전자책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예	68	26.3
	아니오	191	73.7
전자책서비스 비이용 이유	홍보 부족으로 전자책서비스가 있는지 모름	119	62.3
	전자책서비스에 원하는 책이 없음	7	3.7
	전자책서비스 사이트 사용의 불편함	5	2.6
	종이책 이용으로도 충분함	9	4.7
	전자장비로 책을 보기 불편함	4	2.1
기타	47	24.6	
전자책서비스 이용 빈도	1회 이하	38	55.9
	2~3회	21	30.9
	4회 이상	9	13.2

<표 5>의 이용현황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대학교에서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259명 중 105명(4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6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6.3% 수준에 그쳤다.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191명을 대상으로 D대학교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홍보 부족으로 전자책서비스가 있는지 모름'이 119명(6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가 47명(24.6%), '종이책 이용으로도 충분함'이 9명(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한달 간 전자책 이용 빈도는 '1회 이하'가 38명(5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회'가 21명(30.9%), '4회 이상'이 9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종이책 이용과의 선호도 비교

구분		빈도(명)	비율(%)
선호도	전자책서비스	31	12
	종이책 이용	184	71
	상관없음	44	17
전체		259	100

〈표 6〉의 종이책 이용과 전자책서비스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59명 중 184명(71%)이 종이책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에 상관없이 선호도 차이를 두지 않는 응답자는 44명(17%), 전자책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31명(12%)에 그쳤다. 이는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에도 전자책서비스의 유용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7〉 전자책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구분		응답		케이스퍼센트
		N	퍼센트	
전자책서비스 선호 이유	편리한 대출/반납	41	24.3	54.7
	가독성이 좋음	23	13.6	30.7
	도서검색의 편의성	34	20.1	45.3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	53	31.4	70.7
	기타	18	10.7	24.0
전체		169	100	225.3

〈표 6〉에서 명시한 종이책 이용과의 선호도 비교에서 '전자책서비스'와 '상관없음'으로 대답한 75명을 대상으로 전자책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다중 응답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총 169건의

응답 중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이 53건(31.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편리한 대출/반납'이 41건(24.3%), '도서검색의 편의성'이 34건(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이책 이용'과 '상관없음'으로 대답한 228명을 대상으로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다중 응답 분석 결과 총 370건의 복수 응답이 있었으며, '눈의 피로도'가 127건(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자책에 익숙하지 않음'이 113건(30.5%), '전자책서비스 사용의 어려움'이 95건(25.7%), '기타' 35건(9.5%)으로 전자책 사용시 발생하는 눈의 피로도로 인해 종이책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8〉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

구분	응답		케이스퍼센트	
	N	퍼센트		
종이책 이용 선호이유	전자책서비스 사용의 어려움	95	25.7	41.7
	눈의 피로도	127	34.3	55.7
	전자책에 익숙하지 않음	113	30.5	49.6
	기타	35	9.5	15.4
전체	370	100	162.3	

한편, 전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선호하는 이용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자책서비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1명(45.6%), 종이책 이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9명(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책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책서비스를 더 선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9〉 전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이용 서비스 유형 선호도

구분	빈도(명)	비율(%)	
선호도	전자책서비스	31	45.6
	종이책 이용	19	27.9
	상관없음	18	26.5
전체	68	100	

나. 학년에 따른 전자책서비스 이용빈도 및 만족도

전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전자책서비스의 이용빈도 및 선호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학년별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학년별 전자책서비스의 전체적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10〉 학년별 전자책서비스 이용빈도 차이

		빈도(%)				전체	χ^2	p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용 빈도	1회 이하	10(58.8)	15(60.0)	7(46.7)	6(54.5)	38(55.9)	1.123	.981
	2~3회	5(29.4)	7(28.0)	6(40.0)	3(27.3)	21(30.9)		
	4회 이상	2(11.8)	3(12.0)	2(13.3)	2(18.2)	9(13.2)		
전체		17(100)	25(100)	15(100)	11(100)	68(100)		

학년에 따라 전자책서비스 이용빈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학년은 '1회 이하'가 10명(58.8%), '2~3회'가 5명(29.4%), '4회 이상'이 2명(11.8%)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1회 이하'가 15명(60.0%), '2~3회'가 7명(28.0%), '4회 이상'이 3명(12.0%)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1회 이하'가 7명(46.7%), '2~3회'가 6명(40.0%), '4회 이상'이 2명(13.3%)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은 '1회 이하'가 6명(54.5%), '2~3회'가 3명(27.3%), '4회 이상'이 2명(18.2%)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전자책서비스 이용빈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1.123$, $p=0.981$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학년 별로 전자책서비스의 이용빈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년별 서비스 이용 선호도 차이

		빈도(%)				전체	χ^2	p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용 선호도	전자책서비스	8(47.1)	10(40.0)	6(40.0)	7(63.6)	31(45.6)	5.467	.485
	종이책 이용	3(17.6)	10(40.0)	5(33.3)	1(9.1)	19(27.9)		
	상관없음	6(35.3)	5(20.0)	4(26.7)	3(27.3)	18(26.5)		
전체		17(100)	25(100)	15(100)	11(100)	68(100)		

학년별로 서비스 이용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학년부터 4학년 모두 '전자책서비스'가 가장 높은 선호도(45.6%)를 보였다. 학년별 비율을 살펴보면 1학년은 '전자책서비스'가 8명(47.1%), '상관없음'이 6명(35.3%), '종이책 이용'이 3명(17.6%)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전자책서비스'가 10명(40.0%), '종이책 이용'이 10명(40.0%), '상관없음'이 5명(20.0%)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전자책서비스'가 6명(40.0%), '종이책 이용'이 5명(33.3%), '상관없음'이 4명(26.7%)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의 경우 '전자책서비스'가 7명(63.6%), '상관없음'이 3명(27.3%), '종이책 이용'이 1명(9.1%)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이용 서비스 선호도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5.467$, $p=0.485$ 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학년에 따른 이용 서비스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학년에 따라 전자책서비스의 전체적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 만족도는($F=0.388, p=0.762$)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년별 전자책서비스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차이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전체적 만족도	1학년	17	3.41	0.80	.388	.762
	2학년	25	3.36	0.99		
	3학년	15	3.20	0.86		
	4학년	11	3.09	0.83		

다. 이용기기와 이용목적에 따른 전체적 만족도

전자책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적 만족도에 대한 이용기기와 이용목적 각각의 주효과와 이용기기와 이용목적간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책서비스의 전체적 만족도에 대해 이용목적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291, p<.05$), 이용기기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책서비스의 전체적 만족도에 대한 이용기기와 이용목적 간 상호작용효과는 $F=2.194, p<.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목적에 맞게 기기가 이용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이용기기와 이용목적에 따른 전체적 만족도

변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이용기기	1.010	2	0.505	0.960	0.389
이용목적	6.928	4	1.732	3.291*	0.017
이용기기 * 이용목적	8.083	7	1.155	2.194**	0.049
오차	28.417	54	0.526		

$p^* < 0.05, p^{**} < 0.05$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전체 만족도에 대한 이용목적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0.047로 전자책서비스의 이용목적이 '일반 독서'(M=3.52)인 경우 '생활 지식용'(M=2.00)으로 사용할 때

다 전체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이용목적에 따른 전체적 만족도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이용목적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전체적 만족도	일반독서	44	3,222 ^b	0,187
	학과관련 학습	6	3,278	0,327
	리포트 작성	11	3,250	0,236
	생활 지식용	5	2,000 ^a	0,369
	기타	2	2,000	0,513

Bonferroni: a < b

한편 이용기기와 이용목적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의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과 관련 학습이 이용목적일 경우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확률 0.006으로 태블릿을 사용하여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했을 때(M=4.50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전체적 만족도(M=2.3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용목적의 경우 이용기기에 따라 전체적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이용기기와 이용목적의 상호작용에 따른 전체적 만족도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이용기기	이용목적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전체적 만족도	PC(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일반 독서	18	3,667	.171
		학과 관련 학습	1	3,000	.725
		리포트 작성	2	3,000	.513
		생활 지식용	1	2,000	.725
		기타	1	2,000	.725
	휴대전화	일반 독서	24	3,500	.148
		학과 관련 학습	3	2,333 ^a	.419
		리포트 작성	5	3,000	.324
		생활 지식용	3	2,000	.419
		기타	1	2,000	.725
	태블릿	일반 독서	2	2,500	.513
		학과 관련 학습	2	4,500 ^b	.513
		리포트 작성	4	3,750	.363
		생활 지식용	1	2,000	.725
		기타	0		

Bonferroni: a < b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의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자책서비스 제공 방향 및 운영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종이책과 전자책의 선호도에서 아직은 종이책의 선호도(71%)가 전자책의 선호도(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전자책의 이용 만족도(45.6%)가 종이책의 이용 만족도(27.9%)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에 전자책서비스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과(62.3%)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책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눈의 피로도 및 전자책에 익숙하지 않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응답자 학년에 따라 이용 서비스 선호도 및 이용빈도, 전자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이용기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용목적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기기와 이용목적 상호작용에 의해 전자책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책은 대학도서관의 온전한 장서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자책이 입수되더라도 자관에서 종이책과 함께 정리되고 목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외부서비스 플랫폼으로 별도 접근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전자책의 입수에 대해 홍보를 하지 않고 있어 전자책의 이용 여부 및 선호도가 종이책 이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온라인 교육, 블렌디드 러닝 등 비대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자책 수요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자책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용되지 않는 전자책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 그래도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비효율적인 전자책서비스는 도서관 운영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자책 장서 정책 및 홍보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전자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전자책 이용의 편리함을 인식하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자책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눈의 피로도 및 이용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이 갖는 장점은 종이책이 갖는 부피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하나의 단말기 안에 여러 책을 저장하고 휴대가 편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장점은 최대화하고 피로도 및 이용이 불편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책은 여러 조사에서 전자책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

책의 경우 종이책의 구입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와 전용 단말기 구입 및 대여 계약 등을 통해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자책 홍보의 일환으로 전자책 이용 교육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는 학년이라는 특성에 따라서는 전자책서비스 이용빈도, 선호도,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일반 대학에 비해 소수의 전공 및 학년 분포가 제약되어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공과정, 학년, 교육과정, 수업교재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의견 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자책서비스는 이용목적과 이용기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책을 어떤 용도로 어떤 기기로 사용하는지가 향후 전자책서비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해당 대학 내에서 전자책 이용에 대한 정확한 요구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관련 용도, 일반 독서, 과제 수행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기 구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자책 이용 활성화 및 자료구입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지역내 혹은 동일 성격의 대학 간 전자책 공동 이용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전자책과 학술정보자원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과 여러 콘텐츠 벤더가 있으며, 라이선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술정보 공동이용 등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전자책 주제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전자책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학과 규모, 예산, 이용자 등 모든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소규모대학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개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소규모대학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소규모 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책 서비스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학술정보 공동이용과 같은 전자책 서비스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9).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2019-2023). 교육부.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6510>
- 김수정, 이지원 (2016). 대학도서관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67-190.
- 남영준, 최성은 (2011).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87-310.
- 남태우, 김진아 (2003).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4(2), 25-53.
- 배성중, 배삼열, 김용 (2014).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63-97.
- 정다희, 이수상 (2018). 전자책독서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16-223.
- 정진한 (2009). 대학도서관 전자책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진한, 박일중 (2006). 전문대학도서관의 국내 전자책 이용 실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201-222.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2021. 5. 12.). 출처: <http://www.rinfo.kr/>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2. 28.). 일본 소규모 대학 현황과 지원정책. 대학지성 In&Out. 출처: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
- Zhu, X. & Shen, L. (2014). A survey of e-book interlibrary loan policy in US academic librari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24(2/3), 57-6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Sung Jung, Bae, Sam Yeol,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archiveum in a small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 and Records Management*, 14(4), 63-97.
- Jung, Da Hee & Lee, Soo Sang (2018).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book reading to reader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ummer Research Meeting*,

216-223.

- Jung, JinHan (2009) A Study on the Scheme to Activate an e-Book Service in Academic Libraries.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Jung, JinHan & Park, Il-Jong (2006). A study of the using status and environment of domestic e-books in academic libraries of junior colleg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201-222.
- Kim, Soojung & Lee, Ji Won (2016). An analysis of the current practice of e-book management and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focused on a and b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67-190.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1, February 28). Current status of small universities in Japan and support policy. University Intelligence In&Out. Available: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
- Ministry of Education (2019). The 2nd comprehensive plan for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2019-2023). Ministry of Education.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6510>
- Nam, Tae Woo & Kim, Jin A (2003). A study on the e-book service of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4(2), 25-53.
- Nam, Young-Joon & Choi, Sung-Eun (2011).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with e-book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287-310.
- Rinfo (2021, May 12). Available: <http://www.rinfo.kr/>

